

天賜洪福



하늘이 내린 큰 복 | 2022년 09월 10일 제 133-2호 www.minghui.org 진상을 알아 길상을 얻다

진선인 (真·善·忍) 을 깨달아 고생 끝에 낙이 오다

글 / 밍후이 기자 정위엔 (鄭語焉) 대만 취재 보도

원리는 학자 가문 출신이라 아버지가 그녀에게 풍족한 재산을 남겨줬고 게다가 관찮은 직업과 안정된 월급이 있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남편은 직장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책임지는 우수한 인재로서 남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부러워했다. 이렇게 훌륭한 커플인데 어찌 말다툼이 그치지 않아 이혼 직전까지 갔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 티격태격하던 나날들을 이겨왔을까? 원리는 자신의 경험을 기자와 공유했다.

모친상으로 알게 된 슬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원리는 어른들의 '금지옥엽' 같은 보호 속에서 자랐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뜻하지 않은 풍운은 어찌할 수 없었다. 17세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윈 원리는 인생에 큰 빈자리를 느꼈다.

한동안 매번 어머니 날이 오면 원리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젊어서 근심 걱정 모르던' 원리는 생명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인생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불교 밀종 (密宗) 을 잠시 접했으나 이내 흐지부지 그만뒀다.

꿈에서 깨어난 듯한 깨달음

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통과해 감사공직에 오른 원리는 과오를 예리하게 바로잡아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결점을 개선하도록 지시하는 직책을 지냈다. 시정 건수는 실적과 직결돼 실적과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 업무의 특성으로 원리는 부정적인 사고와 관리 마인드를 키웠고 높은 곳에 서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결점이 습관해됐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실적 경쟁 압력이 큰 데다 퇴근 후 가정과 자식들을 챙기느라 하루하루 바빴다.

직장 상사가 그에게 파룬궁 (法輪功) 을 추천하며 연공을 가르쳐줬다. 하지만 바쁜 생활과 시대와의 불화가 심각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남편 회사 문제로 마음과 힘을 소모해, 원리에게 법공부와 연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수련은 하는



가정의 평화를 되찾은 원리와 남편 커엔 (科言)

동 마는 동 하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몸에 문제가 생겨 병업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순간,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각오가 생겼다.

원리는 안으로 찾아 자신을 돌아보게 된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수련으로 돌아와 착실히 수련하며 정진했다. 진선인의 단련 속에서 내적, 외적 환경이 마치 봄비가 부드럽게 만물을 적시는 듯 변했다. 사람을 대함에 냉담하고 교만하던 태도가 겸손하고 따뜻함으로 바뀌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겼다. 남편의 친구는 혀를 두르며 놀랍고도 이상하다며 물었다. "어찌하여 부인이 달라졌나요?" "오! 파룬궁을 수련해서입니다."

시대와 대립에서 화목한 가정으로

원리의 시대는 장사하는 시골 사람이라 책도 얼마 읽지 못하고 표현도 서툴다 보니 말투나 태도가 좋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시대에 대한 깔보는 마음을 갖게 된 원리는 사소한 일에도 심각하게 대립했다. 가정환경과 생활 조건은 원리가 자란 우월한 환경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시대에 가는 것이 매우 두려웠던 그녀는 구실을 찾아 피할 수 있으면 피했고 심지어는 한동안 가지 않았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원리는 진선인의 표준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상대방 입

장에 서서 남을 너그럽게 대함을 배웠다. 옆으로 보면 긴 능선으로 뻗어 있지만 측면에서 보면 깎아지른 봉우리이듯, 각도를 바꾸어 생각하자 시부모님의 소박하고 돈독한 모습을 본 원리는 자신의 이전 잘못을 깨달아 서로의 관계가 나날이 평온해졌다. 지금은 바쁜 와중에도 명절이나 평일에 기회만 있으면 기꺼이 시댁으로 가서 두 노인과 함께 하며 시부모님이 좋아하면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렸다. 시어머니는 원리를 매우 좋아하신다. 때때로 원리가 정말 시간을 낼 수 없어 못 가면 "원리는 왜 안 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배려와 기대가 가득했다.

집착의 관문을 뚫고 명 (名), 리 (利), 정 (情) 을 뛰어넘다

성격이 온화하고 총명한 원리의 남편은 회사도 매우 활기차게 경영한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재복의 신은 늘 그와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도 돌봐주지 않았다.

회사의 반복적인 적자는 매달 몇십만 위안의 인건비만으로도 골머리를 앓는데 기타 비용 지출은 말할 나위도 없다. 원리의 든든한 후원금이 남편 회사 재정을 뒷받침해 주었지만 계속해서 공백을 메워줘도 남편 회사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다. '돈은 가난한 (2면에 계속)

화재 속의 기적

글 / 웨쥬 (月菊, 중국)

우리 집은 300여 평방미터의 일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우리 집과 벽 하나를 사이 두고 작은 음식점이 있었다.

음식점이 불에 타 뼈대만 남다

2014년 3월 어느 날, 식당 요리사는 불을 붙이고 큰 국자로 기름을 두른 뒤 안채로 일하러 갔다. 음식점 직원이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주방 전체가 불에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놀라서 모두 집을 뛰쳐나오면서 “빨리 전화해요!” “불이야!” 라고 소리 질렀다.

가게에서 돈을 받고 있던 나는 밖의 외침을 듣고 바로 뛰쳐나왔고 그때 음식점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즉시 가게 안채로 달려가 남편에게 얼른 모든 스위치를 내리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 보니 음식점 지붕에서 불길기 확확 솟구치고 있었다.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음식점과 우리 가게는 같이 지어 지붕이 잇닿아 있었고 지붕을 목재 대들보와 아스팔트 펠트지로 만들었으며 게다가 지붕 전체가 비닐로 덮여 있었다.

그때 음식점 사람이 “집안에 가스탱크가 있어요! 가스탱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 가게는 이미 검은 연기가 자욱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망했어, 반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망했어’라고 생각했다.

그때 남편은 집안의 귀중품을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나보고 빨리 나가라고 했다.

그때 내가 과룬따파를 수련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전법륜 (转法轮)’과 대법서적 한 세트를 큰 여행 가방에 넣은 다음 뒷마당으로 달려가 안전한 곳에 두었다.

그리고 울면서 사부님께 청을 드렸다. “사부님, 제발 가스탱크가 터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절대 큰불이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불이 넘어오기만 하면 가게가 모두 타버립니다.”

불이 20분 정도 탔을 때 소방차가 도착했고 소방차 두 대가 동시에 30분 넘게 불을 꺼서야 화재가 진압됐다. 온통 아수라장이 된 음식점은 지붕이 없이 하늘이 보일 정도로 뼈대만 남았다. 집안 물건도 다 타버려 망가진 냉장고 한 대와 액화석유 가스탱크 6개만 남아 있었고, 액화가스 탱크 2개는 밖으로 기체를 내뿜고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 둔 가게가 무사하다

하지만 식당과 벽 하나를 사이 둔 우리 가게는 무사했다! 가게 안의 40~50만 원의 물품들은 전혀 손실이 없었다.

가게에 와 본 이웃과 친구들은 어디도 타지 않은 것을 보고는 흥분해서 말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 큰불에 하나도 타지 않았다니 너무 행운이고 복이 많네요!”



한 이웃 아주머니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좋은 사람이라 복을 받은 겁니다!” 내 눈에서는 자비로우신 사부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과룬궁 수련자인 것을 아는 이웃 아주머니는 “예전에도 불이 난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이렇게 큰불은 처음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집에 앉아서 불을 제압하다니 정말 탄복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제게 어찌 큰불을 제압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을 지켜준 건 제 사부님이십니다!”

맺음말

많은 사람이 일생에 한 번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것이고 언론도 이런 사례를 많이 보도했다.

예를 들어 2011년 중국 전통 설 기간에 선양 만신빌딩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건물 두 채가 거의 모두 타버렸지만 건물 안의 목조 불상 하나만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2005년 동남아 쓰나미 때 부서진 기와 위에 우뚝 솟은 거센 파도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은 불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런 기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신불 (神佛)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신불의 실제 존재, 신불의 자비와 은혜를 느끼고 천지신명을 더욱 경외한다. 또 선악의 인과관계를 굳게 믿고 자발적으로 덕을 쌓아 선을 행하면서 신불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

◆ (1면에 이어) 사람의 팔자이고, 부자의 쓸개’라는 말이 있다. 원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밑 빠진 독 아닌가?’라며 당황했다.

원리는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남편은 이전의 빚을 갚고 또다시 돈을 빌렸고, 재삼 끊임없이 돈을 빌리고 또 갚고 다시 빌렸다. 위기를 느낀 원리는 남편에게 돈을 갚고 회사를 닫으라고, 직업을 바꾸라고 강요했는데 이렇게 부부는 반복해 싸우게 됐다.

원리는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지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마음속 괴로움과 억울함, 원한 등을 언어폭력으로 바꿔 남편에게 발산했다. 부부 싸움이 심할 땐 이혼할 뻔했다. 시부모님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걱정만 할 뿐이었다.

진선인을 수련하는 가운데 원리는 이것은 ‘명리정’의 시련임을 깨달았다. 그녀

는 먼저 금전적 손실을 두려워하는 걱정과 불만을 털어놓고 남편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간곡하게 이야기했다.

아직 수련하지 않았으나 줄곧 원리의 과룬따파 수련을 지지해온 남편은 원리의 체득과 제시된 계획을 인정했고, 부부는 한마음으로 어떠한 시련과 곤경도 직면하기로 다짐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상황이 달라졌다.

마음에 따라 변하는 환경

남편의 컴퓨터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창업 아이디어가 풍부했던 그가 개척한 다른 사업도 순풍에 돛을 단 듯 확장되면서 주류 인맥도 갈수록 많아지고 계층도 갈수록 높아졌다. 어려서부터 음악반에서 재능과 기예 훈련을 받은 원리는 문화예술계 주류들이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조

건을 참작해 음악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선원과 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토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게다가 남편의 인맥도 사회 주류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남편은 흔쾌히 지지했다.

원리는 재력이 있고, 남편은 인맥이 있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었다. 몇 차례 활동에서 명성과 입소문을 얻으면서 원리와 남편은 각자의 길을 헤쳐 나갔으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잘 어울렸다. 마음이 바뀌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진다.



4년간 수련을 거쳐 여러 난치병이 완치되다

글 / 트란 민 찌우 (베트남 번역문)

내 이름은 트란 민 찌우 (Tran Minh Chieu)이다. 올해 72세이고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파룬따파 [法輪大法, 파룬궁 (法輪功) 이라고도 함] 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근 4년간의 수련을 거쳐 여러 난치병이 완치됐다. 이 기적은 나의 상상을 뛰어 넘었다.

1 질병에 시달려 절망에 빠지다

1975년 이전에 나는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었고 화학무기의 피해를 보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질병에 걸렸는데 당뇨병, 이상 혈압, 관절통, 담석, 위암, 전정기능 장애, 인후통 등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았다.

나는 많은 큰 병원과 외국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며 경혈 마사지와 침구, 그리고 다양한 동양의학 치료법도 시도해봤다. 모든 치료는 허사였고 질병은 계속 날 괴롭혔다. 2015년 10월 위장 수술을 받으며 5분의 4를 절제했다.

2017년 2월, 34살 된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은 날 견딜 수 없게 했고 질병도 점점 심해져 몸부터 정신까지 망가졌다. 체중이 15kg 빠졌고 사람은 장작처럼 여위어 안색이 창백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2 신체 단련으로부터 진심으로 수련하다

2017년 8월 15일, 사촌 누나가 전화로 파룬궁을 수련하면 내 몸에 매우 큰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조카가 '전법륜 (轉法輪)' (파룬궁의 주요 저서, 40여 종의 언어로 번역됐음) 을 선물했고 또 파룬궁의 5가지 공법을 무료로 배



2017년 5월 12일 파룬따파 흥전 25주년 뉴욕 경축 행사에 베트남 파룬따파 수련생은 전통 의상 아오자이를 입고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울 수 있는 자료도 찾아줬다. 일주일 만에 공법 동작을 기억했고 5가지 공법을 열심히 연마할 수 있었다.

1년 가까이 나는 '전법륜'을 세 번만 읽었을 뿐 사부님께서 책에서 말씀하신 법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파룬궁을 단지 몸만 단련하는 줄 알았지 대법 수련인 줄 몰랐다.

2018년 5월에야 우리 지역에 있는 파룬궁 연공장을 찾았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단체 법공부와 연공에 참여했다. 단지 한 달 만에 몸에서 나타난 큰 변화를 느꼈다. 잘 먹고 잘 자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자신의 병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3 상상을 뛰어넘는 파룬궁 수련의 기적

다음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의 신기한 변화들이다.

우선 수련 전 혈당 수치가 17mmol/L (공복 정상은 3.9~6.1) 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의사들은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고 말한다. 약을 먹는 것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평생에 약과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수련 후 당뇨병 약을 먹지 않은 지 거의 4년이 됐다. 지금 혈당 수치는 건강한 사람의 상태로 매우 안정적이다.

둘째, 위 수술을 받은 뒤부터 7년 가까이 위장병이 날 괴롭혔다. 지금 화학 실험 결과 내 위장에는 이미 K 세포 (킬러 세포: 위역제폴리펩티드를 합성하는 살해 세포)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수련 전 혈압이 75/55 까지 낮아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할 상태였다. 여러 해 동안 생명을 구하는 기공을 찾았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대법을 수련한 후 혈압 수치는 115/75 로 노인들에게 매우 이상적이다. 나는 거의 4년간 약을 먹지 않았다.

넷째, 예전에 있던 담석은 흙모래 모양이었다. 의사는 염증이 생겨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건드리지 말라고 건의했다.

의사는 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쓸개를 절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초음파 결과 쓸개가 정상이고 담즙이 투명하게 분비돼 더 이상 결석이 보이지 않는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나는 술도 약도 먹지 않았는데 여러 불치병이 사라졌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는 매일 많은 약과 특별한 음식을 먹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수천만 동 (베트남 화폐 단위, 1000만 동은 약 2900위안) 정도 든다.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았으나 내 몸과 마음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보고 약을 먹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도 2019년에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다. 우리 부부는 매일 열심히 법공부와 연공을 하고 있다. 근 4년간의 수련을 거쳐 나와 아내는 각종 난치병, 불치병이 다 나아 평소에도 주사를 맞지 않고 약을 먹지 않는다. 이 기적은 상상을 초월하며 날 구해주신 사부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4면에 계속)

선량한 할머니가 의로움으로 복을 받다

글 / 핑판 (平凡, 중국)

50대 중반의 슈진(秀瑾, 가명)의 아들과 딸은 이미 결혼해 자립했고 귀여운 손녀를 두고 있다. 슈진은 손자가 있기를 바랐으나 몇 년 동안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선한 마음으로 두 귀인을 구하다

2016년 겨울, 슈진이 손녀에게 솜옷을 만들어 주던 중 마을 주민이 간부 몇 명을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두 명의 파룬궁 수련자를 본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슈진은 “못 봤어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마당을 떠났으나 문밖에서 지키고 있었다.

이때 슈진은 자신의 집 마당 뒷벽 뒤에서 선한 얼굴의 두 여자를 발견했다. 그중 한 명은 슈진에게 “아주머니, 우리는 파룬궁 수련자입니다. 당신 마을에 달력을 배포하러 왔는데 아까 그 몇 사람이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 집에 좀 있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슈진은 “그들이 아직 안 갔으니 들어가서 물 좀 드세요”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슈진을 따라 방에 들어가며 말했다. “물은 안 마시겠으니 아주머니와 얘기를 나눕시다”라고 말했다. 슈진은 다급하게 “당신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슈진은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 왜 자꾸 탈당을 권유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마음의 매듭을 풀고 정의를 행하다

자리에 앉자 그중 한 여자 [이하 차이샤(彩霞), 가명]가 “아주머니, 파룬궁이 불법(佛法)인 거 아세요?”라고 말



했다. 슈진은 “알아요. 당신들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지요. 저도 부처님을 믿어요”라고 말했다. 차이샤는 “승려에게 밥 한술 주어도 공덕이 무량하다고 합니다. 오늘 대법이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당신이 대법제자를 도와주신 것도 공덕이 무량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슈진에게 알려주었다. “텐안면 분신자살”은 가짜이며 공산당 장쩌민 일당이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고, 그들은 또 파룬궁 수련자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해 암암리에 팔고 있어요.”

슈진은 매우 놀랐고 이는 지옥에 들어갈 죄임을 직감했다! 파룬궁 수련생이 사람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탈퇴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 지옥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파룬궁 수련생이 정말로 사람을 구하고 있구나! 정의감을 느낀 슈진은 수련생 두 명을 마을 밖으로 호송하기로 했다. 문밖에 아무도 없자 슈진은 자기 집 차로 그들을 마을 밖 도로까지 데려다줬다.

한 달 후, 새해가 다가오자 차이샤와

동료는 선물을 사서 슈진에게 감사드리러 왔다. 그들은 특별히 마을 사람들에게 선(善)을 권하는 편지를 써서 새해 축하카드에 담아 장터에서 나눠주기도 했다. 마을 간부들과 사람들은 마침내 파룬궁 수련생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향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임을 깨달았다. 마을 간부는 다시는 파룬궁 박해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당원이었던 슈진의 남편도 탈당에 흔쾌히 동의했다.

소원대로 손자를 보다

차이샤는 슈진에게 길상의 두 귀염둥이가 그려진 명후이(明慧) 세화를 선물했다. 슈진은 즐겁게 받아들이며 며느리 방 벽에 붙였다.

설을 쇠고 슈진은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가보려 했다. 며느리는 “어머님, 안가도 돼요. 임신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슈진은 이를 듣고는 기뻐하며 “파룬궁은 정말 신기해”라며 감탄했다.

10개월 후 며느리는 정말로 슈진에게 포동포동한 손자를 안겨드렸다.

◆ (3면에 이어서)

4 열심히 진선인(真·善·忍)에 동화하다

나는 늘 가족에게 대법 사부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신 새로운 삶이라고 말한다. 내 경험을 통해 파룬따파는 정말 신기하

며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도덕 수준을 향상하며 마음에 평안을, 가정에 행복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 아내와 나는 약 60명의 친척과 옛 동료들에게 대법을 수련해 수혜 입은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파룬따파 자료를 선물하며 진상을 알렸다. 그들 중 20명이 대법 수련에 들어왔고 확고하게 정진하고 있다.

파룬따파는 우주의 본원과 인간을 구성하는 법칙을 논술했는바 진선인(真·善·忍) 세 글자에 담겨있다. 법공부가 깊어지면서 수련의 관건은 자신의 심성을 높이는 것이며, 대법제자로서 항상 진선인의 원칙으로 자신을 가늠하여 반본귀진(返本归真)해 자신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다.

‘삼퇴’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보기에 실명, 가명, 애명으로 모두 탈퇴 가능합니다. 봉쇄돌과 프로그램으로 탈당 사이트 tuidang.epochtimes.com 에 접속해 ‘삼퇴’ 성명하시길 바랍니다.